

식품경제 불확실,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③
 지금은 위험은 분산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신[Balance] 통신편드 랩

2015년 10월 19일~4일
 10월 20일~22일
 10월 23일~25일
 10월 26일~28일
 10월 29일~31일
 11월 1일~3일
 11월 4일~6일
 11월 7일~9일
 11월 10일~12일
 11월 13일~15일
 11월 16일~18일
 11월 19일~21일
 11월 22일~24일
 11월 25일~27일
 11월 28일~30일
 11월 31일~12월 1일
 12월 2일~4일
 12월 5일~7일
 12월 8일~10일
 12월 11일~13일
 12월 14일~16일
 12월 17일~19일
 12월 20일~22일
 12월 23일~25일
 12월 26일~28일
 12월 29일~31일

오늘의 날씨 | 맑음 | 기온 15℃/20℃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음력 9월 24일)

기독일보

석간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668호

**"자기야, 말은 안했지만
와이셔츠 다림질 참 힘들어!"**
 오늘, 아내의 속마음에 귀 기울여보세요, 와이셔츠 세탁서비스

대한민국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 점점 더 관대해져...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한국교회, 대응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이 점점 관대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줘 우려를 낳고 있다. 낙태가 불법이란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게 됐지만,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낙태가 ‘일종의 살인’이란 인식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낙태금지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73%, 모르는 이들은 17%였다. 1994년 낙태금지법이 있음은 아는 국민(48%)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낙태금지법 인지도는 설문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20대 84%, 30대 88%; 60대 이상 55%) 성별로는 남성 72%, 여성 73%로 비슷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하게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를 규정하며,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범죄로 인한 임신,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 등에만 국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1953년부터 존속했으나, 199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성인의 낙태금지법 인지도는 48%, 당시 여성 중 38%가 낙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실에서는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으로 간주되어 왔다.

2010년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15~44세)의 낙태 수술 경험률 29.6%, 낙태율(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 15.8건으로 OECD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더 중요한 것은 ‘허용 여부’이다. 국민들은 ‘보다 엄격하게 금지’(21%)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필요한 경우 허용’(74%)해야 한다고 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필요 시 낙태 허용’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40대에서는 그 비율이 85%를 넘었다. 낙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214명, 자유응답) ‘생명 존중/경시하면 안 됨’

(41%), ‘인구 감소 우려/저출산’(35%), ‘낙태 남발/무분별/무책임’(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753명, 자유응답) ‘원하지 않은 임신일 때’(31%), ‘강간, 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18%), ‘미성년, 미혼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우’(17%), ‘개인이 결정할 문제/본인 선택’(9%), ‘아이 건강, 기형아 출산 문제’(8%), ‘낳아서 책임 못 지거나 버리는 것보다 낫다’(5%) 등을 언급했다. 낙태 금지론자들이 태아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출산 후 여성과 아이 삶의 질을 더 중시한 것이다.

이어 성인의 53%는 낙태를 ‘일종의 살인’으로 봤으나 35%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1994년에는 78%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답했다. ‘낙태가 일종의 살인’이라는 인식은 남성(49%)보다 여성(57%), 60대 이상(65%)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낙태 금지론자 중에서는 83%가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했고, 낙태 허용론자 중에서는 ‘일종의 살인’ 45%·‘그렇지 않다’ 44%로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한편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 대다수가 크게 반발했고, 10월 15일 서울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방침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9%(총 통화 5,429명 중 1,018명 응답 완료)로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이나래 기자

“GMO완전표시제로 식탁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한국YMCA, ‘반GMO 행동의 날’ 개최하고 반대 성명서도 발표

한국YMCA가 GMO식품에 대한 경고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미 한국YMCA는 지난 9월 6일 유전자변형 농식품(이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을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활협동조합과 함께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현행 식품표시제에 의하면 식품 GMO를 원재료로 하여 식품을 가공할 때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어 식용류, 담류, 건강 등은 GMO 원료 사용여부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국YMCA는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GMO포함 식품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마저 박탈한 식품 표시제”라 지적하고, “비의도적으로 혼입이 될 경우도 EU 기준 0.9%보다 높은 3%로 지정하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GMO 식품을 섭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청원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법」에

는 이러한 원재료를 기반하여 단백질과 DNA 잔존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표시하도록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를 0.9%이하로 허용함으로써 ‘무유전자변형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에 소속된 전국 67개 지역 시청년회는 입법청원안의 취지를 홍보하고, 현행의 식품표시제가 얼마나 소비자를 기만하였는지를 알리고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통해 GMO의 위험성과 우리 식탁에 얼마만큼 GMO 식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10월 20일 한국YMCA ‘반GMO 행동의 날’을 통해 전국67개 시청년회와 함께 피켓시위, 현수막 동시게시, 서명운동, 캠페인 등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YMCA전국연맹과 전북지역의 시청년회는 농촌진흥청 앞에서 GMO비 시험재배의 중단을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한국YMCA의 GMO비 시험재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성명4면

이나래 기자

“정보의 홍수, 문서선교 방주로”

2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2016 문서선교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행사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문서선교라는 방주 타고, 정보의 홍수 넘어서자”

기출협 문서선교협력위원회, 2016 문서선교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행사 개최

(사)한국기독교출판협회(회장 한동인, 이하 기출협) 문서선교협력위원회가 21일 낮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복음의 방주를 타고, 정보의 홍수를 넘어서자”란 주제로 ‘2016 문서선교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행사를 가졌다.

주최 측은 먼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언급하고, “흔히 지금 시대를 정보화 스마트 디지털 등의 말들로 표현하면서 각각의 독특한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우리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산업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정보의 홍수, 기술의 홍수, 물질의 홍수, 탐욕의 홍수 시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지혜’와 ‘진리’가 필요하다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대답이 바로 ‘복음’일 것”이라 했다. 이어 “어떤 면에서 보면 발전하는 과학기술산업의 홍수가 우리 ‘문서’를 덮어버린 듯 하다”고 지적하고, “서적이 문을 닫고, 출판사도 책을 만들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인재들이 문서선교를 외면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혹되지 말자. 이것은 홍수가 주는 현상일 뿐, 그 홍수를 이기는 ‘방주’인 문서선교

의 참 위력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창조의 그 때처럼 아무런 기반도 없고 문명물마저 기록적으로 높았던 100년 전 선교사들과 권서인들이 빛의 권의 성경책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오늘과 같은 거목으로 성장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몸을 싣고 이 홍수를 이겨낼 때 다시 문서선교의 열매가 이 땅과 민족에게 맺히길 것”이라 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글 성경이 반포된 것은 1882년 가을 서상륜씨에 의해서였다. 그가 누가복음서, 즉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를 한글판으로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최초의 복음서를 출간한 것이다. 그 후로 1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150여 기독교 출판사에서 연간 1,200여 종의 신간 서적이 출간되고, 수만 종의 기독교 양서가 전국에 산재한 300여 기독교 서점을 통해 국내외에 보급되고 있다. 주최 측은 “선교 130년에 1천 만 성도를 갖게 된 놀라운 부흥의 이면에는 문서선교를 위해 헌신해 온 많은 이들의 노고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때문에 주최 측은 문서선교의 날에 대해 “이 날을 제정해 안으로는 문서선

교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더 뜨거운 헌신을 다짐하고, 밖으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문서선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 관심을 갖게 해 문서선교의 발전을 꾀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을 지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자 함”이라 했다. 한편 1부 기념예배에서는 신영식 회장(한국기독교서점협의회)의 사회로 방주식 부회장(기출협)이 기도하고, 안성우 목사(일산로고스교회)가 “기적이 주는 메시지”(요6:3~13)란 주제로 설교하고 축도했다. 2부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행사에서는 최승진 기출협 사무국장의 사회로 한동인 회장(기출협)이 개회사를, 김재권 목사(생명의말씀사 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이요섭 부회장(기출협)이 문서선교의날 제정 배경 및 목적을 낭독하기도 했다. 2016 문서선교의날 유공자는 ▶올해의 기독교판인상 민병문(새한기획) ▶올해의 기독교서점인상 김재기(대구대우기독교서적) ▶올해의 디스플레이 서점상 김민영(아멘서적) ▶올해의 모범직원상 오완(출판편집, 쿠팡출판사) ▶과기대(출판영업, 도서출판 소망) ▶이동식(서점직원, 종신대 구내서점) ▶올해의 저자상 최윤식(생명의말씀사) ▶올해의 역자상 김태곤(하늘기획) ▶올해의 문서선교 교회상(부산 행복한교회, 성남 제일교회, 신기 중앙교회) ▶특별공로상

유영태(도서출판 소망) 김승훈(요단서적) 등이다.

한편 주최 측은 문서선교의 날을 맞아 “불법 복제 및 거래, 하나님도 미워하신다”는 제목의 긴 호소문을 전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기독교 서적과 기독교 용품 관련 불법 복제 및 거래 사례를 제시하고, “국내 신학대학이나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광범위한 불법복제 현실은 신앙적 양심과 설정법의 기준에 비취볼 때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도적질하여 얻은 지식을 아무리 잘 포장해 미화시켜도,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의 모든 신학교와 목회자 후보생, 그리고 목회자들은 주의 종을 훈련시키는 신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행위들에 대해 회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와 신학교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 이뤄지는 불법과일 복제 및 거래를 근절하고 정직하고 건강한 상거래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소중히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결국 복음이 심겨지고 뿌리내리고 자라 열매 맺는 가장 정당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했다.

조은식 기자

한기총 주최, 美 흑인지도자 환영 오찬 가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19일(수) CCMM 빌딩 12층 투니미엘에서 북미주친선협회(The Friendship Council of U.S.A., 회장 황준석 목사)에 소속된 필라델피아 흑인지도자 37명을 환영하고 오찬을 가졌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방문단 대표로 Herbert Hoover Lusk III(Gr. Exodus 침례교회 담임목사)는 “오늘 한기총과 이영훈 대표회장님의 초청으로 친선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북미주친선협회 회장 황준석 목사는

“1995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아 60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1996년에 전미한인교회협의회 회장단이 주도해서 북미주친선협회를 창설하고, 흑인지도자와 교류하며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를 알려왔다. 금년이 15번째 방문이다.”며 “앞으로의 선교는 동역선교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와 흑인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소망하고, 또 흑인 사회로 초청하여 성장의 현장을 공유하

기를 원한다. 또한 이러한 사역이 韓?美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명예회장 이강평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환영 오찬에서 이용규 목사(경증대표회장)와 김영진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초대회장, 前농림부장관)가 각각 축사하고, 엄신형 목사(경증대표회장)가 오찬기도 및 축도했다.

박용국 기자

사회

검찰, 수사팀 확대 K스포츠·미르 관계자 ‘줄소환’

재단 ‘최순실 역할·영향력’ 파악 문체부 국장급 간부들도 조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경위 및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검사를 대폭 늘려 실질적인 ‘특별수사팀’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현재 형사8부 소속 4~5명의 검사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주임검사인 한웅재 부장검사 외에 2명의 주무 검사를 지정했으나 최근 수사 상황이 급진전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로 2명의 평검사들 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 의혹’ 사건 수사 검사가 모두 5명

으로 늘어나 실질적으로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셈이 됐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엄정 처벌’ 언급을 함에 따라 사건이 특수부 등 대형 부패 사건을 다루는 부서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재배당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형사8부에 배당할 때부터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며 “현재로서는 재배당을 할 이유가 없고 형사8부가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 본관점거 학생들, 85일만에 농성 끝

이화여자대학교 본관을 점거해 86일째 농성하던 학생들이 최경희 전 총장의 사직서가 21일 수리되자 농성을 풀기로 했다.

이대 학생들은 이날 오후 5시에 보도 자료를 통해 “학교법인 이화학당으로부터 최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공문을 수령해 본관 점거 농성을 해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사회의 결정을 기쁘게 수용

하며, 본관 내부와 비품 정리가 필요해 구체적인 해제 일자는 학교 본부와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께 법인 행정동에서 이사회를 열고 최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대 학생들은 7월 28일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점거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교수와

교직원을 본관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이 때문에 최 전 총장이 요청한 경찰력이 투입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감금 혐의로 일부 학생들을 수사 중이다.

장기화되던 농성은 아권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최순실씨를 향한 의혹이 이 대학으로까지 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이 대학에

부정 입학했으며 학사관리에서도 특혜를 받았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학생들과 함께 총장 사퇴를 요구하던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이 시위를 예고한 19일 최 전 총장은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다.

본관 점거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차기 총장 선출 등 문제가 남아있어 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장세규 기자

경찰 총기 살해범’ 성병대 ‘구속’

“암살 당할까봐 범행”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병대(4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1일 살인·특수공무

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씨를 구속했다.

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되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성씨는 19일 오후 강북구 반동 오래산터널 입구에서 직접 만든 사제 총을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감은 성씨가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모(68)씨를 길거리에서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간간지 등으로 9년 6개월간 복역하고

2012년 출소한 성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으나 범행 당시 발찌를 훼손하기가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한 성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암살될 것을 우려해 경찰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성씨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은 이모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해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원종 실장 “최순실, 靑출입한 적 없는 걸로 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 “내가 아는 한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최 씨의 출입을)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대책 회의가 열린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다룬 일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정감사 때 관련 질문도 많이 나왔고 부처별로 했던 일이 계속 해명했기 때문에 솔직히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큰 무게를 두고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미, 美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필요성 공감”

국방부는 21일 “한미 양국은 안보협회의 회(SCM)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미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관련, 일부 언론에 ‘미국 측

이 상시 순환배치를 사실상 거절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런 입장을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국방부는 이어 “한미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조선업 고용지원 대책 추진 중”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동남권역 5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에서 “경남·울산·부산 지역은 조선업 밀집 지역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조만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10월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

굴하기 위해서 꼭 해내야 하는 작업”이라면서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업 문제와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안철수 현상, 아직 우리 사회에 유효…다시 살려야”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21일 “안철수 현상이랄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유효하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걸 다시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손 전 대표의 탈당 후 행보와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의 제3지대 연대설이 부상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인 이운영씨와 함께 구기동 자택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계복귀 선언과 함께 펴낸 책 ‘나의 목민심서-강진일기’에 나오는 국민의당 안 전 대표 관련 대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책 내용 그대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책에서 지난 8월 안 전 대표가 전남 강진으로 찾아와 합

류 제안을 하자 “우리 둘이 힘을 합쳐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정권교체를 합시다”라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전 대표는 상경 후 안 전 대표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화와 와서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입당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하하”라며 기자들에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웃음으로 받아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탈당 선언에 대해서는 “아침에 그 얘기 듣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서 “이후 다시 전화가 안 났고 문자를 보냈는데 TV를 보니 탈당을 했더라”고 손 전 대표는 말했다.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 모바일 앱 mykids, ww.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ww.or.kr

3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4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5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6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7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8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9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10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1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12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13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14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15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16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17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18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19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0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2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3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4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5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6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7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8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9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30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3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32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33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34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35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36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37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38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39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40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4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42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43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44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45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46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47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48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49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50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5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52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53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54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55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56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57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58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59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60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6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62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63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64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65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66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67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68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69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70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7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72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73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74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75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76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77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78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79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80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8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82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83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84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85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86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87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88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89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90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9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92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93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94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95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96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97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98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99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100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귀중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들을 부르러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셔서 죄를 사해주셨고 상처 받은 사람들을 부르러 오셔서 상처를 싸매어주셨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베푸시고, 계속해서 죄악의 세력에 지배를 받으면서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더욱 더 풍성하게 베푸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넓고 깊고 오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상처받은 자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회개와 기도와 예배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와 기도와 예배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합니다. 오늘 아침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상처받은 자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건강한 자들보다는 병든 자들을 의인들보다는 죄인들을 편한 자들보다는 상처받은 자들을 더 귀중하게 보시며 부르시고 귀중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중의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질병과 악함과 죄성을 몸에 지니고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보시고 귀중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들

중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과 환경적 목사님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도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상함과 아픔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상함과 아픔을 지닌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경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

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34-40).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과 교제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임명희 목사님과 정경화 사모님과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YMCA 성명서] GMO 반대 및 GMO 버 시험재배의 중단을 촉구한다

GMO는 생명의 근원을 위협하는 행위

GMO 농식품은 생명의 원초적인 성질을 인위적인 공학기술로 조작, 변형시켜 생명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위적 생명체를 생산해내면서 생명세계의 본질과 질서를 파괴하는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생산물이다.

특히 이는 하나님의 생명창조와 섭리에 대한 근원적이고 전면적인 도전이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다.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본성과 경계를 허물고, 동식물간, 종간의 벽을 허물어 인위적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생명공동체의 근원부터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GMO의 부작용과 피해 드러나

이미 각국에서 행한 수많은 실험과 여러 곳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GMO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GMO 식품을 먹인 동물실험을 통해 암 발병율의 증가, 불임, 난임의 확산, 면역력의 감소, 기형아의 증가, 수명의 단축 등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다. 또한 GMO 콩을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차오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들은 더 이상 GMO 농산물이 인간 및 생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GMO는 다국적 기업의 수익증가 수단 일뿐

GMO를 통해서 는 농민들에게는 소득

증대, 식량증산을 통한 기아문제의 해결이라는 논리아래 개발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농민은 소득증대가 아닌 다국적 기업의 종자와 제초제 장사의 수익구조로 악용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는 주식을 GMO로 생산하고자 하는 정부

세계 어느 나라도 주식을 GMO로 개발하지 않는다. 미국도 주식인 밀은 GMO로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주식인 벼를 GMO로 개발하고 산업용으로 시험 재배하는 행위는 백년지대계인 농업을 무너뜨리고, 주식인 벼를 GMO로 생산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GMO 버 시험재배는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의 생태계 교란행위

전북 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GMO 버의 시험재배는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단순한 과학실험수준이 아니라 재배단지 내에서 대량위로 품매화인 벼를 재배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전체 농식품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한국YMCA 는 정부와 농촌진흥청에 요구한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GMO 버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하고 GMO 농식품 개



지난 2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GMO 반대 부산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의 모습.

한국YMCA

발연구를 즉각 중단하라.

GMO 벼로 인해 유전자 변형의 영향을 받은 지역 및 농산물에 대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상하라.

둘째, 현재까지 진행됨으로써 주변에

셋째, 한국은 GMO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여 향후 GMO 농식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배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라.

넷째, 이미 수입된 GMO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하고 더 이상의 GMO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을 금지하라.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고객센터 1588-1900

www.epostbank.go.kr